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5, No. 8 pp. 404-410, 2024

https://doi.org/10.5762/KAIS.2024.25.8.404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교사 전문성 및 목표중심 자기조절이 유아교사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정명선
중부대학교 상담심리교육전공

The Impact of Professionalism and Goal-Focused Self-Regulation on Early Childhood Teachers' Happiness

Myung-Sun Chung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Education, Joongbu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교육조직의 성과적 관점에 근거하여 교사 전문성과 목표중심 자기조절이 유아교사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유아교사 181명을 대상으로 교사 전문성, 목표중심 자기조절, 행복감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외에 연구대상의 연령, 결혼상태, 학력, 교사 근속연수, 월 급여에 관한 기초적인 배경정보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사전분석 단계에서 유아교사의 결혼상태, 학력, 근속연수, 월 급여에 따른 행복감의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으며, 연령, 교사 전문성, 목표중심 자기조절은 유아교사의 행복감과 유의한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단계선택법에 의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주요분석 단계에서 연령은 제외되고 유아교사의 전문성과 목표중심 자기조절만이 행복감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또한 상대적 기여도는 목표중심 자기조절, 전문성 순으로 행복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유아교사 개인과 교육기관인 조직을 잇는 긍정적 자원으로 목표중심 자기조절과 교사 전문성을 제안하며, 개인의 전반적 행복감을 직업 장면의 결정적 자원을 통해 설명한 데 의의가 있다.

Abstract From the perspective of educational performance, this study examined the impact of professionalism and goal-focused self-regulation on early childhood teachers' happiness. One hundred and eighty-one teachers completed a survey on professionalism, goal-focused self-regulation, happiness,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ge, marital status, level of education, years of teacher service, and monthly income).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preliminary analysis showed no difference in happiness depending on the marital status, education level, years of teacher service, and monthly income of early childhood teachers and that only age, professionalism, and goal-focused self-regulation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early childhood teachers' happiness. On the other h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tepwise selection excluded age and indicated that only professionalism and goal-focused self-regulation significantly explained happiness. Regarding relative contribution to happiness, goal-focused self-regulation had the most influence on happiness, followed by professionalism. This study suggests goal-focused self-regulation and professionalism as positive resources that bridge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and exploring the overall happiness of individuals through crucial job resources would be valuable.

Keywords : Early Childhood Teacher, Happiness, Professionalism, Self-regulation, Positive Psychology

본 논문은 중부대학교 교원연구년 과제로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Myung-Sun Chung(Joongbu Univ.)
email: coup001@hanmail.net
Received May 14, 2024 Revised June 17, 2024
Accepted August 2, 2024 Published August 31, 2024

1. 서론

행복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연구자들의 오랜 이슈로서, 최근 긍정심리학에서 조직행동과 관련하여 떠오르고 있는 연구주제이다[1]. 또한 교육기관 역시 하나의 조직으로 인식되면서, 교사를 비롯한 교육조직 구성원들의 행복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행복은 각 개인에 따라 상이한 의미를 내포하는 다소 모호한 개념이기는 하지만, 인간의 웰빙(well-being)과 번영(flourishing), 삶의 질(quality of life)과 연관된다[2,3]. 즉 행복이란 개인 삶의 만족을 나타내는 웰빙에 대한 주관적 상태로[2,4], Seligman[5]이 그의 행복이론에서 제안한 즐거운 삶(pleasant life), 적극적인 삶(engaged life), 의미 있는 삶(meaningful life)이라는 행복의 세 가지 경로에서 볼 때, 행복한 개인은 개인의 내적 영역에서 나아가 가정, 직장, 지역사회 등 폭넓은 영역에 기여함을 알 수 있다. 요컨대 행복감은 단지 개인 삶의 사적 부분에 국한되지 않으며, 사회에서 일을 하고 일정 역할을 수행하는 구성원에게 있어 행복감과 더 나은 업무성과는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증명되고 있다[6,7]. 이것이 곧 결과 및 성과를 중요시하는 조직에서 행복이 조명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처럼 행복감을 일과 조직에서의 전반적인 웰빙과 동일선상에 놓고 일정 성과를 달성해야 하는 교육조직에 대입하면, 교육체계의 성과는 교육의 질에 달려있다는 합의점에 이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교육의 질이란 보다 구체적으로 McKinsey[8]에서 타이틀로 제시한 바와 같이, “교육체계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The quality of an education system cannot exceed the quality of its teachers)”는 말로 대표된다. 오늘날과 같은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이며 기초능력을 단단히 다진 인재 양성과 공급이 교육기관의 주된 역할이자 거두어야 할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대표적으로 교육에서의 전문성 확보, 특히 교사의 전문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9]. 게다가 본 연구의 대상인 유아교사의 경우 교육체계 내 가장 어린 연령대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있음으로 해서, 양질의 교육을 강조하는 시대적 분위기와 맞물려 전문성 신장에 대한 책무성을 강력히 요구받고 있다[10,11]. 실제로 자신의 전문성을 인식하는 교사는 교육 프로그램에서부터 제도 및 환경을 더 잘 활용하고 교육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요구적인 직무특성 및 환경에도 보다 쉽게 몰입한다[12-14]. 다시 말해, 전문적 자신감을 가지고 일에 몰입하는 경험은 행복감과 연계될 수 있다[15,16].

한편, 유아교사에게 기대되는 전문성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사 양성체제를 통한 교육과정에서 획득하는 학력 또는 자격증이라는 형식적인 면보다 훨씬 복잡하고 까다롭다[10]. 교사 전문성은 자격을 취득하고 교사가 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속성을 띤다[17,18]. 즉, 전문성 함양을 위해 설정되는 교사의 목표는 교육대상이나 환경, 생활사건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으며, 보다 중요한 것은 성장과 발달을 위해 교사 스스로 기꺼이 그러한 목표의 수정을 거듭해야 한다는 점이다. 게다가 유아교사는 교수 및 유아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문제를 목표에 맞게 처리하고 즉각적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모든 것을 매뉴얼대로만 처리할 수는 없는 유동적 상황에 노출되는 어려움을 가진다.

이때 필요한 것이 최근 떠오르고 있는 구인인 목표중심 자기조절(goal-focused self-regulation)로, 이는 외부의 지시나 강화 없이도 자신의 목표에 부합하도록 감정, 충동, 사고, 행동 등을 억제하거나 반대로 실행에 옮기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19]. 그간 자기조절은 학습자[20] 및 중독[21] 관련 영역에서 관심을 받아왔다. 그러나 정서 및 행동에 있어 목표추구와 자기조절을 동시에 고려하는 개념으로 발전하면서[19,22], 가령 교사는 자신보다는 교육서비스 이용자인 학생중심에서 많은 것을 판단해야 하는 것처럼[23] 서비스이용자 중심에서 본인의 역할을 규정함과 동시에 홀로 수행해야 할 책임영역이 비교적 폭넓은 직업군에서 목표중심 자기조절의 역할이 조명되고 있다[23,24]. 또한 심리적 웰빙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고[25,26] 감정노동 상황에서 유아교사가 소진되지 않도록 완충기능을 한다[27]. 따라서 목표중심 자기조절은 꾸준히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고 더불어 그 성과까지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전문성의 지속가능성장, 행복감의 유지 및 향상에도 관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교사 전문성 및 목표중심 자기조절이 유아교사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고,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교사 전문성 및 목표중심 자기조절과 유아교사의 행복감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교사 전문성 및 목표중심 자기조절이 유아교사의 행복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상위 연구문제 해결 시 기초정보로 조사된 유아교사의 인구통계학적 배경정보도 함께 검토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개인의 행복감에 기여하는 직무장면의 결정적 자원을 밝히고 개인과 조직 및 사회를 잇는 긍정자원의 탐색을 확장하는 데 의의를 두었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D지역 소재 유치원교사로, 편의표집을 통해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어 실시된 2주간의 조사에서 자료가 수집되었다. 약 200부의 자료 중 질문지 적합성 검증을 통해 최종 181부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이들의 평균연령은 35.13세(SD = 8.78, Range = 22~56)로 그 외 구체적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Table 1. Frequency of demographic variables
(N = 181)

Variable	Category	N	%
Marital status	Single	124	68.5
	Married	54	29.8
	Et cetera	3	1.7
Level of education	Two-year college	53	29.3
	Three-year college	67	37.0
	Four-year university	56	30.9
	Post-graduate degree	5	2.8
Years of teacher service	Less than 1 year	37	20.4
	1~2 years	45	24.9
	3~5 years	52	28.7
	6~7 years	24	13.3
	More than 8 years	23	12.7
Monthly income	Less than 1 million won	4	2.2
	1~1.2 million won	3	1.7
	1.2~1.4 million won	6	3.3
	1.4~1.6 million won	21	11.6
	1.6~1.8 million won	67	37.0
	1.8~2 million won	43	23.8
	More than 2 million won	37	20.4

2.2 연구도구

2.2.1 교사 전문성

유아교사로서의 전문성 측정을 위하여 21문항의 Kim[18]이 구성한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유아에 대한 지식(학습자 및 교육과정 이해), 수행(교육과정 계획과 실행, 평가 및 환경구성), 태도(교직관 및 대인관계)의 3개 요인, 5점 평정식으로 전문성을 측정하며, 총 점수가 높을수록 유치원교사의 전문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의 α 계수 .83~.87로 보고되었으며[18], 본 연구에서는 7문항의 지식이 .86, 7문항의 수행이 .80, 7문항의 태도가 .78로, 전체 척도는 Cronbach의 α 계수 .85로 나타났다.

2.2.2 목표중심 자기조절

유아교사의 목표중심 자기조절을 측정하기 위해 총 13문항의 목표중심 자기조절 척도(Goal-Focused Self-Regulation Scale: GF-SRS)[19]를 사용하였다. 이는 외부의 지시 또는 강화 없이도 독립적으로 사고, 감정, 충동, 수행 등을 억제·실행하는 일련의 능력을 4개 요인(목표지향, 긍정적 사고, 정서조절, 목표실행), 5점 평정식으로 측정하며, 총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조절 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는 전체 문항이 Cronbach의 α 계수 .85~.86으로 보고되었으며[19], 본 연구에서는 3문항의 목표지향이 .84, 4문항의 긍정적 사고가 .83, 3문항의 정서조절이 .81, 3문항의 목표실행이 .78로, 전체 척도는 Cronbach의 α 계수 .86이었다.

2.2.3 행복감

유아교사의 행복감 측정을 위해서는 옥스퍼드 행복 질문지(Oxford Happiness Questionnaire: OHQ)[28]의 번안판[29]을 교사에 적합하도록 수정한 총 21문항의 OHQ[30]를 사용하였다. 이는 삶의 여러 상황에서 느낄 수 있는 웰빙 수준을 5점 평정식으로 측정하며, 총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내적합치도로서의 신뢰도는 Cronbach의 α 계수 .96으로 보고되었으며[30], 본 연구에서는 Cronbach의 α 계수 .94로 나타났다.

2.3 자료분석

본 연구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사전분석 단계로서 본 연구의 주요변인과 함께 조사한 Table 1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내 다범주 간에 준거변인인 행복감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 연속변인(continuous variable)인 유아교사의 연령과 3개 주요변인(교사 전문성, 목표중심 자기조절, 행복감)에 대해서는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주분석 단계로서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 및 이의 상대적 영향력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전분석 단계의 차이검증 및 상관분석을 통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변인을 예측변인으로, 유아교사의 행복감은 준거변인으로 두어 단계선택법(stepwise selection)에 의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공차한계(Tolerance)는 .92~.97로 모두 .10 이상, VIF 값은 1.03~1.08로 모두 10 이하이므로,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31] 분석을 진행하였다.

3. 결과

3.1 사전분석

먼저 본 연구의 주요변인에 대한 분석 전에, 유아교사로부터 얻어진 기초자료인 인구통계학적 변인 범주(Table 1 참조) 간에 행복감에 의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Table 2. Comparison of happiness between participant groups according to demographic variables

Variable	SS	df	MS	F
Marital status	69.68	2	34.84	.24
Error	25908.87	178	145.56	
Total	25978.55	180		
Level of education	843.31	3	281.10	1.98
Error	25135.25	177	142.01	
Total	25978.55	180		
Years of teacher service	310.12	4	77.53	.53
Error	25668.43	176	145.84	
Total	25978.55	180		
Monthly income	666.77	6	111.13	.76
Error	25311.79	174	145.47	
Total	25978.55	180		

그 결과, Table 2와 같이 결혼상태(F(2, 178) = .24, *n.s.*), 학력(F(3, 177) = 1.98, *n.s.*), 유아교사로서의 근속연수(F(4, 176) = .53, *n.s.*), 월 급여(F(6, 174) = .76, *n.s.*) 모두 하위범주 간에 행복감의 차이는 파악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다른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달리 연속형 변인인 유아교사의 연령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주요변인인 교사 전문성, 목표중심 자기조절, 행복감 변인과 함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3. Means, standard deviations, and correlations

Variable	M	SD	Correlation			
			1	2	3	4
1 Age	35.13	8.78	—			
2 Professionalism	65.37	8.31	.20**	—		
3 Self-regulation	41.26	7.27	.17*	.28**	—	
4 Happiness	55.05	12.01	.15*	.31**	.51**	—

* $p < .05$, ** $p < .01$

상관분석 결과, Table 3에서 볼 수 있듯이, 연령은 유아교사의 전문성(r = .20, $p < .01$), 목표중심 자기조절(r = .17, $p < .05$), 행복감(r = .15, $p < .05$)의 3개 변인 모두와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또한 유아교사의 전문성은 목표중심 자기조절(r = .28, $p < .01$) 및 행복감(r = .31, $p < .01$) 변인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 목표중심 자기조절 역시 행복감(r = .51, $p < .01$)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3.2 주요분석

사전분석 결과에 따라 3개 예측변인(연령, 교사 전문성, 목표중심 자기조절)을 투입하여 행복감 측정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Durbin-Watson은 1.49로 2에 근접하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아 잔차들 간 상관관계가 없으므로 본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행복감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의 분산분석표는 다음의 Table 4에 제시하였다.

Table 4. ANOVA of regression model

Model	SS	df	MS	F	R^2
Regression	7656.52	2	3828.26	37.19***	.30
Residual	18322.03	178	102.93		
Total	25978.55	180			

*** $p < .001$

단계선택법에 의해 3개 예측변인 중 연령 효과는 유의하지 않아 제외되었고(t = .57, *n.s.*), 최종적으로 목표중심 자기조절과 교사 전문성의 2개 변인이 포함된 모형이 Table 4와 같이 유아교사의 행복감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2, 178) = 37.19, $p < .001$).

Table 5.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happiness

Variable	B	S.E.	β	t
Self-regulation	.77	.11	.46	7.09***
Professionalism	.27	.10	.18	2.76**

** $p < .01$, *** $p < .001$

개별 예측변인의 기여도와 통계적 유의성에 관한 검증 결과를 제시하면(Table 5 참조),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예측변인은 교사 전문성과 목표중심 자기조절이었으며, 예측변인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계수로 볼 때에는 목표중심 자기조절(t = 7.09, p 〈 .001), 교사 전문성(t = 2.76, p 〈 .01) 순으로 유아교사의 행복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Table 1에 제시된 유아교사의 전체 인구통계학적 특성들을 더미(dummy) 변인화하여 연령, 교사 전문성, 목표중심 자기조절과 모두 함께 투입하여 분석했을 때에도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유아교사의 행복감을 설명하는 데 있어 결혼상태, 학력, 근속연수, 월 급여, 연령은 제외되고, 목표중심 자기조절과 교사 전문성 순으로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일과 관련된 장면에서 행복감을 확장할 수 있는 긍정적 개인자원을 찾는 데 의의를 두고,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교사 전문성과 목표중심 자기조절이 유아교사의 행복감에 기여할 수 있는지 그 영향력을 검토하였다. 이에 따라 밝혀진 결과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복감에 있어서 지금까지 시행된 인구통계학적 변인 관련 연구들은 그 결과가 혼재되어 있는데, 예컨대 급여수준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다고 보고한 연구[16]가 있는 반면, 급여에 따른 행복감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고 제시한 연구[32]도 있다. 본 연구의 경우 급여수준에 있어서 행복감의 유의한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으며, 이는 Lee와 Park[32]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그 외 결혼상태, 학력, 근속연수라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에서도 집단 간 행복감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는 앞서 제시한 연구[16,32]와 모두 일치하는 결과이다.

더불어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에서 연속변인인 연령과 본 연구의 주요변인인 교사 전문성, 목표중심 자기조절, 행복감의 상관분석 결과, 이 4개 변인은 모두 서로 간 정적 관계성을 보였다. 물론 높은 연령대에서 행복감을 높게 보고한 것은 선행연구[16,32]와 그 방향을 같이하는 결과이지만, 여기서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유아교사라는 직업군의 연령분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전체 성인층의 연령분포와 달리 본 연구대상의 경우 적어도 대학졸업 이후의 20대부터 중년층까지로만 구성되어 있으므로, 연령과 행복감의 직선적 정적 관계를 단정하는 해석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성인층에서는 연령과 행복감 간 U자 곡선 형태를 발견할 수 있으며[33], 본 연구대상에는 행복감에 낮은 점수를 찍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행복감이 상승 중인 대상이 포함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주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복감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른 모든 변인들은 제외되고 목표중심 자기조절, 교사 전문성 순으로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분석 시 연령은 행복감과 정적 상관성을 가졌으나, 유아교사의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발휘하지는 못하였다. 특히 나머지 두 변인(교사 전문성, 목표중심 자기조절) 중에서도 목표중심 자기조절이 행복감을 가장 강하게 설명하여, 목표중심 자기조절이 높을수록 행복감을 높게 보고하였다. 이는 행복감과 유사한 개념인 삶의 만족 및 웰빙에 자기조절이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를 뒷받침한다[34]. 즉, 자기조절은 고정된 패턴에서 벗어나 바람직한 행동은 촉진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은 억제하는 반응경향을 유연하게 하는데[35], 이것이 결과적으로 삶의 보다 긍정적 결과들을 생산해내는 것처럼 보인다. 그 예로, 자기조절은 유아교사의 스트레스나 소진을 관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27], 학업성취를 위해서도 자주 언급된다[20]. 따라서 목표중심 자기조절은 외부의 힘이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고 자기 자신에게 바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장기적 목표추구를 가능하게 하고 정신건강적 문제나 직업적 문제를 상쇄하는 메타기능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24].

목표중심 자기조절 다음으로는 유아교사의 전문성 인식이 행복감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업과 관련하여 능력을 인정받고 자율성이 충족되는 등 필요 욕구가 충족될 때 더 높은 수준의 행복감을 경험한다는 선행연구[36,37]를 통해 간접적으로 입증될 수 있으며, 행복이 일과 관련된 경험 및 사건에서 충분히 영향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신의 수행 및 역량에 대한 자신감과 자질에 대한 신념은 일에서 기쁨을 느끼고 보다 몰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이며, 인간에게 있어 놀이나 여가활동 뿐 아니라 일에서의 성취가 큰 즐거움과 만족감을 준다는 것[15]은 누구나 동의하는 사실이다.

이러한 논의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유아교사의 행복감에 기여하는 개인자원으로 목표중심 자기조절과 교사 전문성을 제안하며,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직무교육에 비해 목표중심 자기조절 관련 교육은 전무한 실정으로, 교사의 목표를 고려한 자기조절 프로그램 개발과 같은 미시적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개발된 프로그램 적용 시에 교사들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이들이 자기조절 능력을 실제로 향상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피드백 제공과 직무교육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행복을 이끌 수 있는 자원을 유아교사로서 중요한 일터에서 찾아 제시하였으나, 이러한 자원을 개발하고 요구하는 데 있어 교사 개인만의 책임 및 인식 영역으로 설정하고 강조한 것은 아니다. 요컨대 후속연구는 교사 전문성 및 목표중심 자기조절과 같은 내적 자원은 고갈되거나 소진될 수 있음을 직시하여, 이를 성장시키고 가꿀 수 있는 교육체계 조성 및 지속적 지원 방향에 대한 거시적 접근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1] F. Luthans, C. M. Youssef, "Emerging positive organizational behavior", *Journal of Management*, Vol.33, No.3, pp.321-349, Jun. 2007.
DOI: https://doi.org/10.1177/0149206307300814

[2] E. Diener, "Subjective well-being: The science of happiness and a proposal for a national index", *American Psychologist*, Vol.55, No.1, pp.34-43, Jan. 2000.
DOI: https://doi.org/10.1037/0003-066X.55.1.34

[3] D. C. Shin, D. M. Johnson, "Avowed happiness as an overall assessment of the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5, No.1, pp.475-492, Mar. 1978. DOI: https://doi.org/10.1007/BF00352944

[4] E. Diener, C. N. Scollon, R. E. Lucas, "The evolving concept of subjective well-being: The multifaceted nature of happiness", *Advances in Cell Aging and Gerontology*, Vol.15, pp.187-219, Dec. 2003.
DOI: https://doi.org/10.1007/978-90-481-2354-4_4

[5] M. E. P. Seligman, Authentic happiness: Using the new positive psychology to realize your potential for lasting fulfillment, p.336, Atria Books, 2004, pp.3-16.

[6] B. Cooper, J. Wang, T. Bartram, F. L. Cooke, "Well-being-oriented human resource management practices and employee performance in the Chinese banking sector: The role of social climate and resilience", *Human Resource Management*, Vol.58, No.1, pp.85-97, Jan. 2019.
DOI: https://doi.org/10.1002/hrm.21934

[7] J. M. Zelenski, S. A. Murphy, D. A. Jenkins, "The happy-productive worker thesis revisited",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An Interdisciplinary Forum on Subjective Well-Being*, Vol.9, No.4, pp.521-537, 2008.
DOI: https://doi.org/10.1007/s10902-008-9087-4

[8] M. Barber, M. Mourshed, How the world's best-performing school systems come out on top, McKinsey and Company, Sept. 2007, pp.16-23.

[9] O. S. Yang, "Pre-service kindergarten teacher education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Vol.19, No.1, pp.25-44, Jun. 2002.

[10] M.-S. Chung, "Relationship between kindergarten teachers' burnout and turnover intention: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The Journal of Humanities*, Vol.33, pp.183-204, Oct. 2013.

[11] J. Ku, "The effects of professionalism awareness and occupational stress on teacher and child interactions in early childhood teacher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8, No.6, pp.470-477, Jun. 2017.
DOI: https://doi.org/10.5762/KAIS.2017.18.6.470

[12] J.-H. Lee, I. H. Lee, "An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teachers' work load,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teachers' professionalism and schools' educational outcomes",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Vol.27, No.2, pp.25-52, Jun. 2010.
DOI: https://doi.org/10.24211/tjkte.2010.27.2.25

[13] M.-S. Chung, "Mediating effects of job stress and moderating effects of autonom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labor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6, No.3, pp.121-138, Jun. 2015.
DOI: https://doi.org/10.15703/kjc.16.3.201506.121

[14] H. Cheon, K. Park, J. Kim, "The effect of early childhood teacher expertise on organizational immersion: Mediation effect of grit",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Vol.13, No.4, pp.1055-1070, Aug. 2022.
DOI: https://doi.org/10.22143/HSS21.13.4.74

[15] M. Csikszentmihalyi, "Flow and education", *NAMTA Journal*, Vol.22, No.2, pp.2-35, Spr. 1997.

[16] K. M. Koh, S. K. Lee, S. K. Shim, "The relationship between early childhood teachers' teaching flow and their happiness and degree of professional development",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Vol.31, No.1, pp.69-94, Mar. 2014.
DOI: https://doi.org/10.24211/tjkte.2014.31.1.69

[17] E. K. Bae, M. J. Dong, H. J. Lee,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on expertise research: Outcomes,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for HRD", *The Korean Journal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Vol.13, No.1, pp.1-26, Feb. 2011.
DOI: https://doi.org/10.18211/kjhrdq.2011.13.1.001

[18] J.-M. Kim, *A structural analysis of the factors affecting kindergarten teachers' professionalism*, Ph.D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pp.32-184, 2017.

[19] S.-D. Won, S.-I. Oh, S. Park, M. K. Rhe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Goal-Focused Self-Regulation Scale (GF-SR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20, No.4, pp.785-802, Jul. 2015.
DOI: https://doi.org/10.17315/kjhp.2015.20.4.005

[20] K. Y. Lim, H. Park, S.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 regulation and co-regulation in a collaborative learning environment: Moderating effect of group cohesivenes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Vol.27, No.2, pp.211-228, May 2015. DOI: https://doi.org/10.17927/tkjems.2015.27.2.211

[21] S.-D. Won, S.-R. Kim, "Impact of goal-focused self-regulation on alcohol use problem: Examining th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ve symptom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36, No.3, pp.291-300, Aug. 2017. DOI: https://doi.org/10.15842/kjcp.2017.36.3.001

[22] C. B. Kopp, "Antecedents of self-regulation: A developmental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Vol.18, No.2, pp.199-214, Mar. 1982. DOI: https://doi.org/10.1037/0012-1649.18.2.199

[23] M.-S. Chung, "The impact of self-regulation on turnover intention: The moderating effect of autonomy support for childcare teacher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3, No.4, pp.363-369, Apr. 2022. DOI: https://doi.org/10.5762/KAIS.2022.23.4.363

[24] M.-S. Chung, "Convergence study of job stress on turnover intention among personal assistan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buffering role of self-regulation", *Journal of Rehabilitation*, Vol.87, No.3, pp.56-60, Jul.-Sep. 2021.

[25] K. N. Aadland, E. Aadland, J. R. Andersen, A. Lervåg, V. F. Moe, G. K. Resaland, Y. Ommundsen, "Executive function, behavioral self-regulation, and school related well-being did not mediate the effect of school-based physical activity on academic performance in numeracy in 10-year-old children. The Active Smarter Kids (ASK) study", *Frontiers in Psychology*, Vol.9, Article 245, Feb. 2018. DOI: https://doi.org/10.3389/fpsyg.2018.00245

[26] J. Hofer, H. Busch, J. Kärtner, "Self-regulation and well-being: The influence of identify and motives",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Vol.25, No.3, pp.211-224, May 2011. DOI: https://doi.org/10.1002/per.789

[27] M.-S. Chung, "Convergenc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labor and burnout in early childhood teachers: The buffering effect of goal-focused self-regulatio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8, No.6, pp.291-297, Jun. 2017. DOI: https://doi.org/10.15207/JKCS.2017.8.6.291

[28] P. Hills, M. Argyle, "The Oxford Happiness Questionnaire: A compact scale for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well-be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33, No.7, pp.1073-1082, Nov. 2002. DOI: https://doi.org/10.1016/S0191-8869(01)00213-6

[29] S. M. Kwon, Positive psychology, p.622, Hakjisa, 2008, pp.37-161.

[30] Y. O. Choi,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y, job stress and happiness by teachers'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Ph.D dissertation, Kyungsung University, Busan, Korea, pp.47-121, 2011.

[31] J. F. Hair, W. C. Black, B. J. Babin, R. E. Anderson, Multivariate data analysis (8th ed.), p.813, Cengage Learning EMEA, 2018, pp.308-320.

[32] K.-M. Lee, J. Y. Park, "A study of relationships among happiness and job related variables of kindergarten teachers for young children",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35, No.6, pp.33-48, Nov. 2015. DOI: https://doi.org/10.18023/kjece.2015.35.6.002

[33] P. Frijters, T. Beatton, "The mystery of the u-shaped relationship between happiness and age",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Vol.82, No.2-3, pp.525-542, May 2012. DOI: https://doi.org/10.1016/j.jebo.2012.03.008

[34] W. Hoffmann, M. Luhmann, R. R. Fisher, K. D. Vohs, R. F. Baumeister, "Yes, but are they happy? Effects of trait self-control on affective well-being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Vol.82, No.4, pp.265-277, Aug. 2014. DOI: https://doi.org/10.1111/jopy.12050

[35] D. T. D. de Ridder, G. Lensvelt-Mulders, C. Finkenauer, F. M. Stok, R. F. Baumeister, "Taking stock of self-control: A meta-analysis of how trait self-control relates to a wide range of behavior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Vol.16, No.1, pp.76-99, Feb. 2012. DOI: https://doi.org/10.1177/1088868311418749

[36] H. T. Reis, K. M. Sheldon, S. L. Gable, J. Roscoe, R. M. Ryan, "Daily well-being: The role of autonomy, competence, and relatednes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26, No.4, pp.419-435, Apr. 2000. DOI: https://doi.org/10.1177/0146167200266002

[37] K. M. Sheldon, R. Ryan, H. T. Reis, "What makes for a good day? Competence and autonomy in the day and in the pers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22, No.12, pp.1270-1279, Dec. 1996. DOI: https://doi.org/10.1177/01461672962212007

정 명 선(Myung-Sun Chung) [정회원]

- 1999년 8월 : 경북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문학석사)
- 2010년 2월 : 대구대학교 대학원 재활심리전공 (이학박사)
- 2009년 9월 ~ 2011년 2월 : 생명장심리상담센터 소장
- 2011년 3월 ~ 현재 : 중부대학교 상담심리교육전공 교수

〈관심분야〉
상담 및 심리치료, 긍정심리, 척도개발, 교육심리